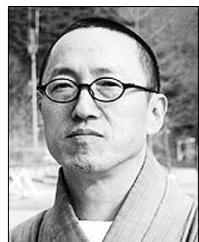




아직도 방생 그렇게 합니까?



도수

정업도량 회주  
본지 논설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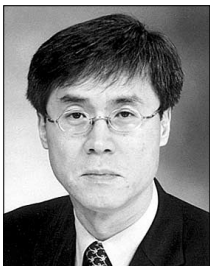
“다른 절들은 방생간다고 아단인데, 우리 절은 언제 방생 가나요?” 몇몇 신도들이 재근한다. 예전부터 연례행사로 해오던 방식의 방생을 착실하게 계승하고 있는 사찰이 아직도 적지 않은 모양이다.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도 예전 같은 방생법회는 마음이 내키지 않는다.

재래시장에 가서 미꾸라지 수십 마리 사다가 관광버스에 오면 시간 흔들려 낚이 썩 빠지게 해놓고 나서, 죽을지 살지 모르는 물에 마구 집어 던져 넣고 집안의 변영과 자손의 무병장수를 비는 방생, 그런 방생 이제는 끝내자고 부르짖는 게 벌써 오래전 이야기인 것 같은데 아직도 미꾸라지 방생이라...

성스러운 생명해방운동인 방생이 언제부터 고작 미꾸라지 해방운동으로 전락하고 말았는지. 또 방생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버스 안은 음주와 마춤의 경연장이 되기 일쑤다.

방생을 마치고 집에 돌아가자마자 미꾸라지 같은 해군 뿐 아니라 육군, 공군 가리지 않고 몸에 좋다는 건 싹쓸이해 식탁에 올리지는 않는가, 이렇고도 방생, 방생, 생을 외치다니. 남에게도 부끄럽고 스스로도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아직도 방생 그렇게 합니까?” 이런 힐난을 받는 스님이나 절이 이제는 없었으면 좋겠다. 그러려면 몇몇 신도의 비위를 맞추기 보다는 그들을 설득해 방생의 방향을 달리 찾아보는 것이 역시 바람직해 보인다. 꺼져가는 생명, 지쳐있는 생명들이 우리 주변에 아직도 숨하게 많지 않은가.



불자 세상보기

송일호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

가난의 대물림, 그들에게 희망을

사회적으로 부가 편중되고 가난이 대물림되면서 사회의 갈등이 심화되는 이른바 경제적 양극화 현상이 외환위기 이후 더욱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그동안 분배보다 성장위주의 정책이 선호되 있었기 때문이다. 경제발전이라는 현상이 단지 국민소득수준의 상승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경제발전의 궁극적인 목표는 빈곤을 극복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있다. 경제의 양적 성장은 이를 달성하기 위한 필요조건이지 충분조건은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의 편중화 현상의 최종적 책임은 국가에 있는 것이다.

한 세대의 경제적 지위가 다음 세대로 대물림되는 과정에서 다음의 세 가지가 요소가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첫째, 세대간의 물질적 재산의 상속이며, 둘째는 교육기회와 관련된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이며, 세 번째는 결혼의 관습으로서 결혼의 두 당사자가 가진 경제적 배경이 비슷한 경우가 많으면 많을수록 불평등

이 고착된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이 세 가지 요소중에서 마지막 요소는 국가가 통제할 수 없는 사항이므로 첫 번째와 두 번째 요소에 대한 개선책이 마련되어야겠다.

먼저 세대간의 재산상속에 관해 살펴보면 그동안 개인적인 부의 축적이 엄청난 규모로 진전되어 왔음에 비해 상속세나 소득세를 통한 평준화의 효과는 지극히 미미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특히 최상위층의 상속세 및 증여세 납부 실효를 검토해 볼 때 평준화는 거의 이루어지지 못한 채 막대한 부가 고스란히 다음 세대로 이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기존의 불합리한 상속세나 증여세에 대한 세제개편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한편으로는 인적자본 투자량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격차를 줄이는 정책이 절실히 요구된다. 경제학적으로 살펴보면 사람마다 학력이나 기술 등 인적자본에 대한 축적이 서로 다르고 이것이 노동의 생산성 격차로 이어지며 궁

극적으로는 소득의 격차로 이어진다는 것이 자본주의 시장논리인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교육에 의한 지식과 기술의 습득을 통해 소득창출능력을 증진시키는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것이다.

국가는 만민에게 동등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최우선적으로 그동안 교육의 기회를 소외당한 계층, 즉 저소득층 자녀들을 대상으로 우선적이며 집중적인 인재육성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요즘의 사회적 분위기를 보면, “공부는 가난한 집 자식이 더 잘한다”는 우리 사회의 전통적 관념이 급격히 변해가고 있음을 본다. 가난한 환경에서 태어났다는 사실은 오히려 예전과 달리 동기를 저하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는 측면이 강하다는 주장도 있다. 한편으로는 경제적 배경을 통한 체계적인 뒷받침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더 강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주장들은 구체적인 근거를 토대로 도출된 결론이 아니어서 앞으로 엄밀한 실증적 검토를 받아야 하지만 경제적 배경과 교육에서의 성취도 사이의 상관관계가 점차 커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국가는 저소득층의 경제적 배경이 되어주어야 한다. 이것만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저소득층에게 자생력을 불어넣고 그들 스스로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것이다. 이러한 방법에 의해 육성된 인재들이 우리 사회에 많이 등장함으로써 소득의 재분배와 부의 편중화 현상은 서서히 완화되어 갈 것이다.

본란(本欄)의 내용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탈북주민 동포에 나누기



한솔종합사회복지관(관장 성화이) 10월 1일 탈북주민과 지역주민을 위한 '이웃과 함께하는 동포에 나누기' 행사를 개최해 주민간 친목을 도모하고 지역사회 통합의 장을 마련했다. 행사에 참여한 탈북주민들은 남한에 온지 3년이 채 되지 않은 동포들로 남한 사회의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다. 또 지역사회 주민들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남한 사회 적응을 위한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됐다.

장문축마

무관심이 불러온 동반자살



5일 장에 할머니와 손자가 동반자살을 기도한 사건이 발생해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9평짜리 임대아파트와 월 20만원의 장애인연금으로 근근이 생활해 오던 이들은 결국 '난 세상에 태어나서 사랑 한번 제대로 받아본 적이 없었다'라는 내용의 유서 4장을 남기고 죽음을 선택했다. 이웃에 발견돼 병원으로 긴급 후송된 이들은 할머니가 숨지고 손자는 생명을 건졌으나 증태다.



현대불교신문 창간 9주년을 축하합니다.

金剛신심! 金剛진각!

한국불교의 밝은 내일을 열겠습니다

- 總 印 慧 一
- 統理院長 孝 庵 淨 山 明
- 教育院長 孝 惠 鎮 休
- 宗議會長 孝 惠 鎮 休
- 查監院長 孝 惠 鎮 休

대한불교 진각종  
http://www.jingak.or.kr

136-865 서울특별시 성북구 하월곡2동 22번지  
대표전화 : (한국)1588-5525 전화 : (02)913-0751-4 팩스 : (02)913-0755

대한불교조계종 제14교구본사

선찰 대본산 범 어 사

조 실 지 유  
주 지 성 오

- 총무국장 정 야
- 교무국장 능 허
- 사회국장 도 관
- 원주스님 초 안
- 기획국장 지 광
- 재무,포교국장 지 종
- 호법국장 각 우
- 신도회장 박수관(명진)

■ 부산시 금정구 청룡동 546번지 전화 051-508-3122 / 팩스051-508-3229

대한불교조계종 제15교구 본사

영축총림 통도사

방 장 노 천 월 하  
부방장 초 우  
전계사 중 산 혜 남  
주 지 이 산 현 문  
선원장 천 진

- 총무국장 산 응
- 재무국장 보 화
- 호법국장 덕 원
- 교무국장 오 심
- 포교국장 정 법
- 원 주 지 범

총림대중일동

■ 경남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583 전화 055-382-7182 / 팩스 055-382-7196

대한불교조계종 제23교구 본사

觀 音 寺

조 실 석 주

- 회 주 중 원
- 부주지 광 조
- 기 획 사 명
- 사 회 승 언
- 주 지 용 주
- 총 무 세 정
- 교 무 유 정
- 호 법 유 방

■ 한라산 관음사 : 제주도 제주시 아라1동 387번지  
전화 064)755-6830 FAX 064)756-2202  
■ 포교당 보현사 : 제주도 제주시 도암동 47-12  
전화 064)722-2829 FAX 064)758-3367